

심리학과 뉴스레터

| 2026년 상반기 제5호 |



학부소식

서울대 심리학과 X 연세대 심리학과 일일호프



2025년 11월 2일(일), 신촌 '바플라이'에서 서울대 심리학과와 연세대 심리학과의 연합 일일호프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홍보 덕분에 행사 전부터 많은 학생들의

기대를 모았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고, 스태프들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스태프 한 명은 "타 대학이랑 행사를 통해 교류를 할 수 있어 좋았고, 대학생활의 로망 중 하나인 일일호프를 진행하여 너무 즐거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2026 심리학과 총 MT



2026년 3월 21일(토)~3월 22일(일), 가평 그린몽키펜션에서 2026 심리학과 총MT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김향숙 교수님, 석혜원 교수님, 오성주 교수님, 임수빈 조교님, 그리고 35명의 심리학과 학부생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체육대회 콘셉트와 마리오 게임 형식의 PPT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바비큐 파티로 진행되었다. 활동적인 게임이 많았지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부상 없이 이틀간의 행사를 잘 마쳤다. 한 학부생은 "교수님들과 함께하여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 동기들과 후배들과도 더욱 돈독해지고 맛있는 고기도 잘 먹고 왔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심리학과 26학번 신입생 환영회

SNU PSYCHOLOGY
**심리 / 일반
신입생 환영회**

설명 바로가기 >

2026년 2월 23일(월), 우석경제관에서 심리학과 새내기를 맞이하는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되었다. 새내기준비위원회의 주도하에 열린 신입생 환영회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학교 생활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25학번과 26학번이 서로를 알아가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짝가죽 공개, 뒤풀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한 신입생은 "다양한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나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2026 심리학과 만우절 행사



2026년 4월 1일(수), 버들골에서 27명의 학우가 모여 만우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고등학교 교복이나 전적대 과장을 입고 참여해 만우절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더했으며,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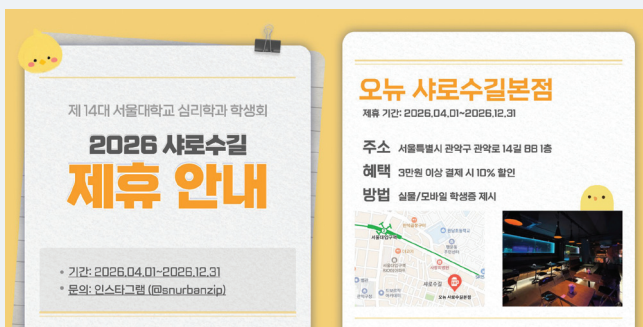
크리에이션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테고리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게임을 통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 학부생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껴 좋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알고리즘> X <시: 공간> "마음, 씨" 연합공연



2026년 4월 3일(금), 홍대 '우주정거장'에서 심리학과 밴드 <알고리즘>과 경제 C반 밴드 <시: 공간>의 연합 공연이 진행되었다. "마음, 씨"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알고리즘의 부원과 시: 공간 부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구성되었으며, 알고리즘과 시: 공간으로만 이루어진 유닛 팀도 하나씩 무대에 올랐다. <Psychiatric Hospital>, <kiddo>, <검은 별>, <축배>, <Enter sandman> 등 총 21곡으로 무대를 채웠다. 심리학과와 경제 C반 학부생을 포함한 관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알고리즘과 시: 공간의 첫 연합 공연이 막을 내렸다. 한 부원은 "타과와 함께하는 행사가 흔치 않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경제C반과 교류가 늘어나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2026 심리학과 제휴 사업



2026.04.01~2026.12.31 동안 '오늘 사로수길본점'과 서울대 심리학과 제휴 사업을 체결하였다.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이라는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며, 심리학과 학생들의 오늘 선호도를 고려하면 방문 수요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리학과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사람을 이해하는 공부가 일이 되기까지



심리학과 19학번 고현서
tb0232@snu.ac.kr



심리학과 19학번 박계령
gyeee@snu.ac.kr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서비스 기획자와 PM으로 일하고 있는 두 명의 19학번 동문을 만났다. 고현서 동문은 현재 이커머스 어플 '플릿 eSIM'의 PM으로 일하고 있으며, 박계령 동문은 네이버에서 커뮤니티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의 일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심리학과에서의 경험이 서비스 기획자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획자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비슷한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들어보았다.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달라.

고현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9학번으로, 현재 스타트업에서 PM으로 일하고 있다. 여행용 eSIM(디지털 심)을 판매하는 커머스 어플을 만들고 관리하는 PM의 역할을 하고 있다. PM은 Product Manager의 약자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프로덕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박계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9학번으로, 현재 네이버에서 약 2년째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모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획' 또는 'Product Planning'이라는 직무로 불리며, 서비스의 큰 방향성부터 세부적인 기능 및 정책까지 정의하고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Q2. 심리학과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경험은 무엇인가.

박계령 심성훈 강사님의 '인지과정 및 실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인지심리학 이론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직접 실험을 설계해보는 경험도 할 수 있어 체득된 지식이 많았다. 현재

학부소식

업무에서도 “화면에 있는 정보가 사용자가 처리하기에 너무 많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여줘야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자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지심리학 내용이 많이 연결된다고 느낀다. 실험심리학이나 언어심리학처럼 직접 실습을 해본 수업들이 특히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

고현서 PM이라는 직무를 고민하던 시기에 들었던 한소원 교수님의 ‘인간공학의 심리학’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심리학과 수업 중에서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 설계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조별 과제로는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하고, 수업에서 배운 UX/UI 방법론을 활용해 앱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았다. 실제로 지금의 직무와도 가장 가까운 경험이었다.

Q3. 복수전공 경험은 현재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박계령 정보문화학 연합전공을 하였다. 정보문화학은 처음부터 서비스 기획자가 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1학년 때 정보문화학 과제전을 보고, 문화 콘텐츠, 게임, 미디어 아트, 앱 서비스 등 다양한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심리학 이론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실제 사회에 적용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앱이나 웹사이트의 사용자 경험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했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빠르고 직접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라 느껴져 재미있었다. 이 경험이 서비스 기획이라는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고현서 경영학을 복수전공했다. 당시에는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일을 하기 위해 경영학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특히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나 네트워킹에 관심이 있었다. 현재 스타트업에서 PM으로 일하면서 서비스 기획뿐 아니라 프로젝트 운영,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 관리 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 관점에서는 경영학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비스 기획 자체에서는 경영학보다 사용자와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직접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낀다.

Q4. PM과 서비스 기획자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가.

고현서 PM은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관리하는 역할에 가깝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PM, PO 등의 직무로 통용되더라도 회사마다 약간 다른 역할과 범위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 중, 우선순위를 정한 뒤 프로젝트로 풀어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다. 가설을 바탕으로 개선 기능을 정의하고, 화면에 반영하고, 개선 후 데이터를 살펴보고, 다음 기능 배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와 같은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PM으로서 주요 업무이다.

박계령 서비스 기획자의 일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조직 구조에 따라 역할이 조금 달라진다. 네이버와 같은 큰 조직에서는 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이 나뉘어 있고, 과제에 따라 담당자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 전체를 혼자 관리한다고 보다는, 채팅, 피드, 캘린더 등 서비스 내 특정 기능이나 영역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데이터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용자 경험을 고민하여 기획서를 작성하고, 디자인과 개발팀에 의도를 설명하고 구현 과정을 조율한다. 이후 테스트를 거쳐 배포하고,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며 다시 개선하는 일을 무한히 반복한다.

Q5. 심리학과에서 배운 내용이나 사고방식이 기획자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고현서 매우 도움이 된다. 기획자로 일하다 보면 “이 기능을 바꾸면 사용자의 행동이 달라질까”, “이 문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한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일까”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된다. 가설을 세우고, 기능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보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는 심리학 수업에서 배운 실험 방법론과 매우 비슷하다. 특히 어떤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집할 것인지, 그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판단할 것인지 설계하는 데 실험과 통계에 대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된다.

박계령 서비스 기획은 결국 작은 실험들의 반복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유용하다 느끼고 있는지, 불편하거나 막히는 지점은 없는지, 우리가 고친 부분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는지 계속 판단하고 검증해야 한다. 심리학에서 배운 실험적 사고는 이런 업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서비스 기획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공자 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계속 고민하고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심리학에서 배운 사람 중심의 사고 방식이 현재 업무에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것 같다.

Q6. 일하면서 가장 재미있거나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박계령 아무래도 사용자 반응이 좋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매일 전날에 올라온 국가별 앱스토어 리뷰를 확인하는데, 사용자가 “이 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만족감을 표현한 리뷰를 보면 내가 만든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획자의 일은 화면이나 기능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일상 속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재미와 보람이 있다.

고현서 가설을 세우고 기능을 설계한 뒤, 실제로 출시했을 때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고 그 결과가 데이터로 확인될 때 가장 보람

을 느낀다. 기능 업데이트는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준비 과정이 길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용자가 잘 따라와주고 서비스가 의도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면 기획자로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

Q7. 반대로 기획자로 일하면서 어렵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

고현서 정답이 없다는 점이 가장 어렵다. 학교 수업이나 시험에는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서비스 기획에서는 “이렇게 고치면 사용자가 더 잘 쓸까”라는 질문에 답을 미리 알 수 없다. 이전 데이터와 가설에 의존해 판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기획 업무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박계령 심리학 실험처럼 모든 변수를 정교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어렵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통제변수를 완벽히 설정하기도 어렵고, 분석도 연구처럼 세밀하고 긴 호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직관과 경험에 기대어 판단해야 할 때가 있다. 또 서비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대규모 팀플레이에 가깝기 때문에, 기획자의 결정이 팀 전체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매출에 영향을 준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택이 맞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는 것 같다.

Q8. 심리학과 후배들이 기획자 커리어를 고민한다면 무엇보다 해보면 좋을까.

박계령 가장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자주 쓰는 앱을 관찰하는 것이다. 앱을 쓰면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 버튼 위치나 화면 흐름에서 막히는 지점은 없는지, 내가 바꾼다면 이런 기능들을 넣어보면 좋겠다든지 생각해보며 쪽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기획의 감을 잡을 수 있다. 기획은 거창한 아이디어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작은 불편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가능하다면 작은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면서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

고현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서비스라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다. 창업 동아리나 서비스 제작 동아리에서 팀을 이루어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보면 기획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기획자들의 업무 경험을 다룬 책이나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기획이라는 일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Q9. 심리학과 출신이 기획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계령 심리학과 출신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는 강점이 있다. 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을 공부하며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분석해본 경험은 기획자로 일할 때 자연스럽게 활용된다. 그런 점에서 심리학은 서비스 기획과 잘 연결되는 전공이라고 생각한다.

고현서 심리학과 출신의 강점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사고방식에 있다. 서비스 기획자는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개선안을 만들고,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심리학에서 배운 실험적 사고와 닮아 있다. 또한 데이터를 볼 때 단순한 숫자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의 행동과 동기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마무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비스 기획이라는 일이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확인하며 개선해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심리학과에서 배운 실험적 사고와 인간 이해는 연구실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현장에서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심리학과 후배들에게 이 인터뷰는 하나의 진로 사례이자, 심리학을 공부한 경험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기획자의 일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다루는 일이지만,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는 그 길에서 분명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학원소식

심리과학연구소 2026 동계 AI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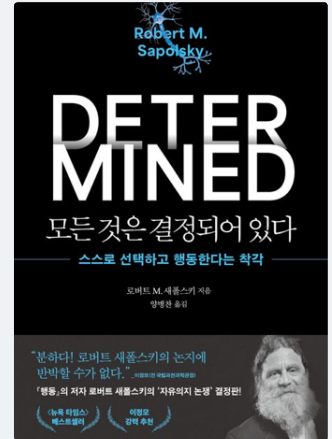
2025년 2월 3일 심리과학연구소 동계 AI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Build your own AI Co-Scientist'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Agentic AI를 활용한 심리과학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는 세션들이 진행되었다. 워크숍 자료와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yoonee78/2026_SNUIPS_AI_Workshop

워크숍은 대학생들의 AI 기반 연구방법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심리과학 연구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연구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차지욱 교수의 개회사와 이윤경 선임연구원의 "AI for Science: Intro to AI agents" 발표를 시작으로, 안선우 석사과정생의 "An Introduction to RAG Through Chatbot Experiment Design with Streamlit", 오세란·윤유진 석사과정생의 "Automated EDA Pipelines", 그리고 이예진 박사과정생의 "AI agents for Manuscript Writing and Peer Review"까지 총 네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심리학과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 뇌인지과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총 74명이 참여한 대규모 워크숍이었다. 본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이 AI 기반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실제 심리과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선택과 행동에 관한 모든 것:
유전자에서 심리학까지


계산임상 연구실 김기표 학생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 로버트 새폴스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점심에 무엇을 먹게 될지 정확히 예상할 수 있을까. 가끔은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점심 메뉴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원인은 현재 일하는 장소 근처의 식당, 최근에 먹은 음식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메뉴에 대한 욕구,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권유 등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원인이 얹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이 불편하다면 죽이나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고를 수 있고, 오후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면 점심을 거를 수도 있다. 누군가가 미리 점심을 사주기로 했다면 애초에 메뉴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다.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오랜 시간 형성된 식습관과 음식 선호, 국적과 성장 배경 역시 오늘의 점심 메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점심 메뉴 선택처럼 크고 작은 결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그 이상 내린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배후에는 무수한 원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작용한다.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왔다. 심리학자, 뇌과학자, 의사, 인류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인간 행동을 다루는 연구 분야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지식을 한데 모아 인간 행동을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동원하듯 다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 이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저자가 인간 행동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을 썼다면 어떨까.

스탠퍼드대학교 생명과학·신경과학·신경학 교수인 로버트 새폴스키는 바로 그런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학자다. 그는 세레게티에서 20년 넘게 개코원숭이를 관찰하고 연구한 영장류학자(『Dr. 영장류 개코원숭이로 살다』 참고)이며, 코르티솔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비롯한 내분비학과 신경내분비학(『STRESS 스트레스』 참고)에 정통한 생리학자이기도 하다. 여기에 행동유전학, 사회생물학, 심리학 지식까지 결합해 인간 행동을 설명해온 대표적인 대중 과학 저술가다.

그의 전작 『행동: 인간의 최선의 행동과 최악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1초 전, 1분 전, 1시간 전, 더 나아가 인류 탄생 이전의 진화적 요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행동의 원인을 추적한 책이다. 이 책은 출간 이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워싱턴포스트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대중적·학술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신작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원제 『Determined』에서 새폴스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의지는 환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 카오스 이론, 복잡계 이론, 양자역학, 철학까지 폭넓게 동원한다. 새폴스키는 전작 『행동』의 에필로그에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는 14살 무렵부터 인간을 아메바나 개미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생물학적 기계로 바라보아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50년에 걸친 학문적 여정은 그 관점을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만든 사실들의 축적에 가까웠다고 그는 말한다.

물론 새폴스키 자신도 일상에서 완전히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여전히 욕이 튀어나온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운전자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유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까지 형성해온 모든 조건과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새폴스키는 과거 프로이트를 비롯한 일부 정신분석학자들이 오늘날에는 생물학적 원인을 가진 질환으로 이해되는 뇌전증이나 조현병 환자,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도덕적 낙인을 부여했던 역사를 돌아본다. 그는 현재 ADHD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점차 바뀌고 있듯이, 언젠가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 행위자라기보다 복잡한 생물학적·환경적 원인들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더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본다.

새폴스키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곧바로 무책임해지거나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없이도 인간 사회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그의 논의는 움직이겠다는 의식적 결심보다 수백 밀리초 앞서 뇌의 준비 전위가 나타난다는 벤저민 리벳 실험의 함의를 훨씬 넘어선다. 그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명제가 왜 과학적으로 설득력을 갖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형사 사법제도, 능력주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까지 논의를 확장한다.

인간의 성격과 능력이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유전과 환경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둘 다 중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아직 우리는 그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를 통해 독자는 왜 한 위대한 노학자가 그토록 자신 있게 자유의지를 부정하는지, 그리고 그의 주장이 얼마나 방대한 근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인용 목록만 100쪽이 넘는다는 사실은 그 논의의 밀도와 야심을 잘 보여준다.

I 거절을 견디는 마음: Rejection Pro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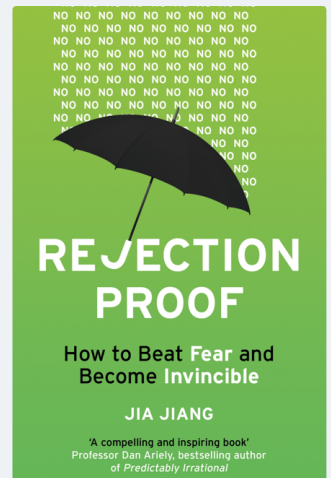


사회심리 연구실 윤설호 학생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거절을 맞닥뜨린다. 저자 Jia Jiang은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스스로 100일 동안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거절당하기’ 실험을 감행했다. 그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매장에 가서 올림픽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낯선 사람의 집 마당에 꽃을 심어도 되는지 묻는 등 다소 황당한 미션을 수행했다.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거절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조금씩 깨뜨려 나갔다.

그가 깨달은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거절이 생각보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거절은 반드시 나라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의 상황, 타이밍, 맥락의 문제일 때가 많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새로운 시도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낮추고, 거절을 조금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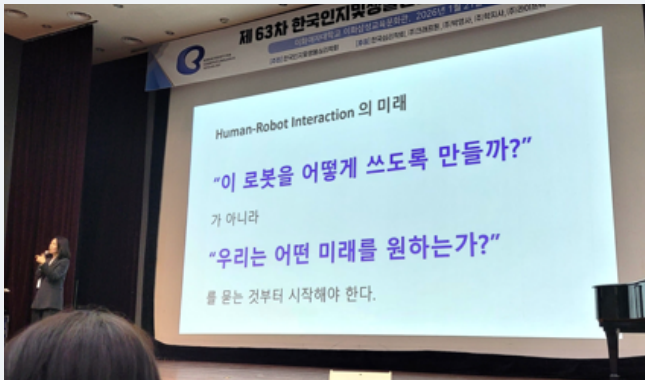
대학원생으로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단어 중 하나는 아마도 ‘Reject’일 것이다. 열심히 쓴 논문이 저널에서 거절당하거나, 공들여 준비한 연구계획서가 날카로운 비판을 받을 때의 상실감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Rejection Proof』는 거절에 민감한 현대인들에게 누군가의 거절이 내 제안에 대한 의견일 뿐, 내 가치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거절을 피해야 할 실패가 아니라,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하나의 경험으로 바라보게 하는 유쾌하고 실천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Rejection Proof』 - Jia Jiang

연구성과

한소원 교수, 2026 한국인지및생물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심포지엄 조직·발표



한소원 교수는 2026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Human-Robot Interaction"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공감하는 기계와 인간: 효율성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HRI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로봇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을 의미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였다. 한소원 교수는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보완하고 향상하는 로봇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적용 사례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공유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참석자들에게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반 재활 및 돌봄 분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인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있어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소원 교수의 발표는 더욱 발전된 기술뿐 아니라 더욱 인간적이고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부승현, 오수빈 학생 2025년 학부대학 학부생 독립연구 프로그램 장려상 수상

심리학과 사회학습발달연구실(지도교수 이해연) 소속 부승현(심리학과 21학번), 오수빈(심리학과 22학번) 학부연구원은 학부대학에서 주관한 2025년 학부생 독립연구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자기애적 취약성의 분노 억제가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억울함을 매개로"라는 주제로 학생 독립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26년 1월 학부생독립연구 포스터 발표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이 모두 대인적 적대성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왜 취약적 자기애만이 보다 광범위한 부정 정서와 관련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팀은 특히 분노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였으며, 지각된 부당함 속에서 억제된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을 의미하는 한국 문화 특유의 정서 개념인 '억울함(Eogul)'을 중심으로 설문 연구와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연구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은 모두 높은 특성 분노와 관련되었으나, 자기애적 취약성은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과 연결되었고, 이러한 분노 억제가 억울함과 우울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쓰기 과제 후 비판 혹은 칭찬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험 연구를 통해,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이 높은 사람 모두 비판 상황에서 높은 분노를 경험하였으나, 취약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비판 및 칭찬 상황 모두에서 더 높은 억울함과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자기애적 성향에 따라 분노를 조절하는 방식이 다르며, 특히 분노 억제가 자기애적 취약성의 정서적 고통을 설명하는 핵심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한국 문화의 정서 개념인 억울함을 심리학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자기애와 정서 조절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서와 심리건강 연구실, 국립정신건강 센터 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과제 선정

정서와 심리건강 연구실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주한 「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 과제에 선정되었다. 본 연구실은 2027년 12월까지 마음챙김에 기반한 자살 예방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하루」를 고도화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예방 개입 모델을 정교화하고, 치료자 교육과 운영 절차를 표준화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소개: 금연 성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계산과학적 방법 개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 연구팀은 “Rapid and Reliable Computational Markers for Predicting Daily Smoking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Treatment Outcomes” 논문을 국제 학술지 Neuropsychopharmacology에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심리학과 박사과정생이었으며 2026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정현 박사가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하였다.

금연 치료에서는 누가 재흡연 위험이 높은지, 어떤 시점에 개입이 필요한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단면적 평가나 긴 행동 과제에 의존해, 금연 과정에서 매일 변화하는 갈망, 정서, 의사결정 특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는 일상 속 심리상태를 반복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계산모델링 기반 인지 지표를 임상 현장에서 짧고 안정적으로 반복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MA와 계산모델링 기반 의사결정 과제를 스마트폰 앱에 통합하였다. 연구팀은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79명의 매일 흡연자를 대상으로 5-6주 동안 하루 세 차례의 심리상태 보고와 매일의 의사결정 과제를 수집하였다. 특히 적응형 설계 최적화(adaptive design optimization, ADO) 기법을 활용하여 자연적인 과제와 위험·모호성 의사결정 과제를 하루 20-30문항 수준으로 단축하면서도, 개인별 의사결정 특성을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전날의 흡연 갈망, 우울 수준, 모호성에 대한 관용도가 높을수록 다음 날 흡연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약물 복용은 다음 날 흡연량 감소와 관련되었다. 이는 금연 과정에서 흡연 행동이 단순히 의지나 동기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변화하는 정서 상태와 의사결정 특성이 함께 작용하는 동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치료 종료 시점의 금연 성공 여부는 낮은 지연할인율, 낮은 흡연 갈망과 스트레스, 더 긴 흡연 기간, 높은 치료 참여도에 의해 예측되었다. 특히 치료 초반 1주일 동안 수집한 의사결정 과제 데이터만으로도 치료 종료 시점의 금연 성공을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장기간의 복잡한 평가 없이도, 짧고 효율적인 디지털 평가를 통해 개인별 재흡연 위험과 치료 반응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계산정신의학, 디지털 표현형, EMA, 머신러닝 기반 실험설계를 결합하여 중독 치료의 예측 가능성과 임상적 활용성을 높인 사례이다. 향후 이러한 접근은 금연 치료뿐 아니라 다양한 중독 및 정신건강 문제에서 개인맞춤형 개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 중독, 약물치료 및 뇌기전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인 Neuropsychopharmacology에 게재되었다. 이 저널은 미국신경정신약물학회(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의 공식 학술지로, 생물정신의학 및 중독 연구 분야에서 높은 영향력을 갖는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심리 연구실 손지우, 2026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Student Award 수상



사회심리 연구실 손지우 석사과정생과 최인철 교수의 연구 "Who do we keep at the table"가 2026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APS) Student Award를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적 불일치가 종교, 학력, 지역 등의 다른 사회적 차이보다 일상적 수용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가장 배타적인 가치 장벽임을 보여줬다. 정치적 성향은 다른 가치들과 달리 관계의 친밀도에 따른 완충 효과 없이, 모든 관계 층위에서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가장 완고한 사회적 경계임이 밝혀졌다.

교수소식

박주용 교수 정년퇴임



박주용 심리학과 교수

박주용 교수는 2026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추대될 예정이다.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실험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학습과 교육, 그리고 조직장면으로 확장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 시스템과 동료평가를 활용하는 수업 시스템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고, 토론과 글쓰기 활동, 그리고 평가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조직 장면에서 선발과 협력을 통한 아이디어 생성 촉진 방안, 학습 장면에서 질문생성을 위한 비계설정, 독해 측정 도구 개발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 창의성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저서로는 『공부의 재발견』 『생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생각 중심 교육』, 『문제 해결』, 『창의 혁명』(공저) 등이 있다.

교수신간

뇌 속의 사회: 사회적 연결은 노년기 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가



- 저자: 최진영, 염유식, 광세열, 이성하, 설설희, 조이수, 김호영, 김준술, 김혜린
- 사회평론아카데미 (2026.04.03)

최진영 교수의 신간 『뇌 속의 사회: 사회적 연결은 노년기 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가』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영문판 Society within the Brain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한국어판으로,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노년기 뇌 건강과 인지 노화, 치매 위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학제적으로 탐구한다.

사회신경과학, 신경심리학, 사회역학, 심리신경면역학 등 다양한 연구를 종합하여, 인간의 노화를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과정'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사회적 연결과 고립이 인지 기능 및 뇌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예방적 개입과 지역사회 기반 보건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노년기 인지 건강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학생, 임상 및 보건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 저자: 한소원
- 스몰빅라이프(2026년 5월 18일)

이 책은 불안, 갈등, 경쟁, 불투명한 미래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심리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책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로망 롤랑이 “산다는 것, 그것은 치열한 전투이다”라고 말했듯, 삶은 때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자신과 세상의 어려움에 맞서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삶의 장면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심리학적 통찰을 소개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불안, 반복되는 습관과 감정의 패턴을 살펴보고, 마음을 보다 단단하게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책에 담긴 84가지 마음의 법칙은 타인을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에 가깝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자기 이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책은 심리학을 일상에 적용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심리학과 대학원생 공식 학술대회 발표성과

2026년 상반기,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은 국내외 유수의 학술대회에서 약 60편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생물심리와 신경과학부터 사회심리, 조직 심리, 인지심리, 임상심리, 계량심리까지 다양한 심리학 분야를 아우르며,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창의적인 연구 주제는 심리학의 미래와 그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심리학과 대학원생 공식 학술대회 발표성과]

번호	발표 저자	지도 교수	발표 년월	발표제목 (학술대회명)
1	구지현	김가원	2026.02	How Do Job Interview Experiences Differ by Social Class: The Role of Job Search Future Time Perspective and Anxiety (2026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	안준호	김가원	2026.05	Perceived Prestige Downward Shif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Aspiring Professionals (2026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nual Conference)
3	송민해	박주용	2026.01	The effect of evaluating others' judgments on memory performance, (2026 Annual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 Biological Psychology)
4	송민해	박주용	2026.05	The effect of evaluating others' problem-solving outcomes on academic performance (2026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Annual Convention)
5	박정애	박주용	2026.05	Grit Isn't Enough: When Metacognition Makes Time Investment Effective (2026 APS Annual Convention)
6	박정애	박주용	2026.06	Writing Facilitates Production-to-Logic Conversion in Creative Problem Solving (2026 World Creativity Conference)
7	안명인	석혜원	2026.07	A comparative study of optimal cut-off indices for criterion-referenced psychological tests. 2026 Internation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oster presentation)
8	강정윤	안우영	2026.06	비침습적 자극을 통한 알코올 갈망조절: 계산 모델링적 접근 (2025 Korean Society for Digital Therapy)
9	김기표	안우영	2026.06	Resting-state Connectivity-based phenotyping of Alcohol Risk Using Multimodal Neuroimaging Data (2026 Korean Society for Digital Therapy)
10	김기표	안우영	2026.06	Resting-state Connectivity-Based Phenotyping of Alcohol Risk Using Multimodal Neuroimaging Data (2026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11	이동원	안우영	2026.06	Forecasting Alcohol Craving via Smartphone-Based Multimodal Data: A Tiny RNN Approach (2026 Korean Society for Digital Therapy)
12	이은휘	안우영	2026.06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양극성 장애의 맥락 의존적 얼굴 표정 패턴 분석 (2026 Korean Society for Digital Therapy)
13	이현민	안우영	2026.06	알코올 사용장애의 음주 위험을 포착하는 지연 할인율과 스마트폰 기반 멀티모달 지표의 일별 변동: 28일 종단 모니터링 연구 (2026 Korean Society for Digital Therapy)

[심리학과 대학원생 공식 학술대회 발표성과]

번호	발표 저자	지도 교수	발표 년월	발표제목 (학술대회명)
14	정진우	안우영	2026.06	Crosswalk Task: A naturalistic reinforcement learning paradigm for characterizing real-world risky behavior (2026 Korean Society for Digital Therapy)
15	정진우	안우영	2026.06	A naturalistic reinforcement learning paradigm for characterizing real-world risky behavior (2026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16	정채윤	안우영	2026.06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on Real-Time Decision_making via Deep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2026 Korean Society for Digital Therapy)
17	신정연	안우영	2026.07	Rapid, Reliable, and Precise Behavioral Assessment Using Adaptive Design Optimization (2026 Computational Psychiatry Conference)
18	이주하	안우영	2026.07	Overestimated Environmental Volatility and Inflexible Belief Updating Underpin Aberrant Decision Making in Type-I Bipolar Disorder (2026 Computational Psychiatry Conference)
19	이현민	안우영	2026.07	Computational Markers and Digital Phenotypes Jointly Characterize Daily Drinking (2026 Computational Psychiatry Conference)
20	강정윤	안우영	2026.07	Computational Markers of Neuromodulation Response in Alcohol Craving (2026 NYC Neuromodulation Conference)
21	이은휘	안우영	2026.07	Toward a mechanistic understanding of neuromodulation in addiction: A systematic review of cognitive effects following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2026 NYC Neuromodulation Conference)
22	박지수	이수현	2026.07	Temporal dynamics of information representation in prefrontal and parietal cortices during goal-directed memory retrieval (2026 Federation of European Neuroscience Societies (FENS Forum 2026))
23	Lu Gao (University of Washington)	이해연	2026. 04	How Young People Respond to and Recover from Social Media Feedback: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Achievement Goals (2026 Society for Researchn on Adolescence (SRA) Biennial Meeting in Toronto)
24	이해연	-	2026. 06	Promoting Stress Resilience in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s' Growth Mindset as a Psychological Context. (The 28th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ural Development (ISSBD))
25	이해연	-	2026. 06	Adolescents' Social Achievement Goals Predict Affective Reactivity to Evaluative Feedback on Social Media. (The 28th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ural Development (ISSBD))
26	천하늘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이해연	2026. 06	Failure as Opportunity or Deficit? Parental Failure Mindsets Shape Parental Feedback and Adolescent Emotional Well-being. (The 28th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ural Development (ISSBD))
27	박민하 한예슬	이해연	2026. 06	Can Observing Adolescents' Failure Affect Parents' Stress Physiology?: A Korea Parent-Adolescent Dyad Study. (The 28th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ural Development (ISSBD))

학술대회 발표목록

[대학원생 공식 학술대회 발표성과]

번호	발표 저자	지도 교수	발표 년월	발표제목 (학술대회명)
28	한예슬	이해연	2026. 06	Subjective Social Statu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chool Environment and Safety as Mediators. (The 28th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ural Development (ISSBD))
29	최소희	이해연 김향숙	2026. 06	Children's Self-Talk During Failure: A Window into Emotion Regulation and Resilience. (The 28th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ural Development (ISSBD))
30	Ng Kye Bee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이해연	2026. 06	PACEs as Antecedents of Mindsets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in a Singapore School-Based Study. (The 28th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ural Development (ISSBD))
31	서정우	차지욱	2025.12	Scalable Diffusion Transformer for Conditional 4D fMRI Synthesis (NeurIPS 2025 Workshop on Foundation Models for the Brain and Body)
32	최주빈	차지욱	2025.12	NeuroMamba: A State-Space Foundation Model for Functional MRI (NeurIPS 2025 Workshop on Foundation Models for the Brain and Body)
33	박정훈	차지욱	2026.04	Q-DIVER: Integrated Quantum Transfer Learning and Differentiable Quantum Architecture Search with EEG Data. (QCNC)
34	박정훈	차지욱	2026.04	Hybrid Quantum Temporal Convolutional Networks. (QCNC)
35	배상윤	차지욱	2026.04	Decoding Dynamic Visual Experience from Calcium Imaging via Cell-Pattern-Aware Pretraining (ICLR 2026)
36	김진일	차지욱	2026.06	fMRI Decoding Reveals Intact Neural Color Representations in Color Vision Deficiency (OHBM)
37	이보희	차지욱	2026.06	Foundation Models Identify EEG Biomarkers for Alzheimer's and Frontotemporal Dementia (OHBM)
38	이승주	차지욱	2026.06	Prediction of SSRI Response by Capturing Spatiotemporal Brain Dynamics with 4D fMRI Swin Transformer (OHBM)
39	최승연	차지욱	2026.06	Biologically Conditioned Generative Models for Longitudinal Brain MRI Prediction (OHBM)
40	최주빈	차지욱	2026.06	Can Natural Image Autoencoders Compactly Tokenize fMRI Volumes for Long-Range Dynamics Modeling?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6)
41	김진일	차지욱	2026.07	Inferring Individualized Color-Vision Distortions from fMRI Hue-Representation Geometry (ICML 2026 workshop on Structured Data for Health)
42	박정훈	차지욱	2026.07	Scalable, Trainable, and Interpretable Quantum Machine Learning for Spatio-Temporal Data with Mixture of Experts. (CQI)
43	문석진	차지욱	2026.08	Fine-Grained Emotion Structure in the Brain-Predictable Subspace of a Self-Supervised Video Model (CCN 2026)
44	오경진	차지욱	2026.08	Geometric Signatures of Event Boundaries in Brain Foundation Models (CCN 2026)

번호	발표 저자	지도 교수	발표 년월	발표제목 (학술대회명)
45	이아현	차지욱	2026.08	NeuroBabyLM: A Benchmark for Brain Alignment in Language Models Trained on Developmentally-Plausible Datasets (CCN 2026)
46	윤유진	차지욱	2026.08	Brain-Tuning Language Models on Task fMRI (CCN 2026)
47	왕희환	차지욱	2026.08	UMBRELLA: A Foundation Framework for High-Dimensional Neuroimaging via Multi-turn Comparative Learning (CCN 2026)
48	김주영	최인철	2026.05	Caring is Sharing, Caring is Greening: The Association of Caring Tendencies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49	권이준	최인철	2026.05	Passion Peaks Early, Ability Rises Slowly: A Longitudinal Test of Job Satisfactio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50	손지우	최인철	2026.05	Who do we keep at the tabl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51	최진영	-	2026.07	Five-year Decline In Cognitive Reserve Was Associated With Anxiety In Community-residing Older Adults (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26)
52	전하진	최진영	2026.07	Structural Social Networks Moderated Cognitive Reserve Decline In Older Adults With High Baseline Anxiety (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26)
53	정서윤	최진영	2026.07	Functional Brain Network Segregation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 And Executive Function In Older Adults (The 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26)
54	조지현	최진영	2026.07	Purpose in Life Moderates the Protective Effect of Sustained Social Activity on Episodic Memory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2026)
55	안선우	한소원	2026.01	Emotion Category Classification and Cognitive Appraisal Inference by Large Language Models Using Subjective Emotional Experience Data (The 2026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56	오세린	한소원	2026.01	Empathic Dialogue Acts and Perceived Empathy: Comparing Human and LLM Responses (The 2026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57	이윤경	한소원	2026.01	Empathic Alignment for Supportive Human-AI Interaction: Perception, Reappraisal, and Preference Learning (The 2026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58	이윤경	한소원	2026.07	What Makes an LLM Response Read as Empathic? A Multi-Dimensional Study of Empathic Alignment (The 48th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59	김민재	한소원	2026.08	Imagining Domestic Human-Robot Futures in South Korea: A Participatory Speculative Design Study (IEEE RO-MAN 2026)
60	안선우	한소원	2026.08	Beyond Emotion Labels: Can LLMs Capture Human Appraisal and Emotion Distributions? (IEEE RO-MAN 2026)
61	이윤경	한소원	2026.08	Cognitive Empathy for Social Robots: Aligning LLMs via Theory-of-Mind-Guided Preference Optimization (IEEE RO-MAN 2026)

지난 2026년 상반기 간 심리학과와 각 연구실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논문 리스트(apa)
Song, M.H., & Park, J. (2026). The effect of evaluating others' decision-making results on subsequent decision-making, <i>The Journal of Psychology</i> , Online First.
송민해, 김가현, 임재서, & 박주용. (2026). 아이디어 생성 후 아이디어 평가 활동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i>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i> , 38(2), 45-54.
Lim & Park(in press). Self-study followed by discussion enhances learning for high school students, <i>Instructional Science</i>
Im, J. J., Kim, H., Lee, J. H., Park, H. J., Joh, H. K., & Ahn, W. -Y. (2025). Longitudinal brain connectivity changes associated with successful smoking cessation. <i>Frontiers in Psychology</i> , 16, 1734803.
Im, J. J., So, E., Kim, K., & Ahn, W. -Y. (2026). A Systematic Review of Interoception in Substance Use Disorders. <i>Current Addiction Reports</i> , 13(1), 43.
Zoh, Y., Kim, S., Kim, H., Crockett, M. J., & Ahn, W. -Y. (2026). Decomposing the neurocomputational mechanisms of deontological moral preferences. <i>PNAS Nexus</i> , 5(4), pgag074.
Lee, J.-H., Lee, S. H., Yang, J., Kim, H., Pitt, M., Park, H. J., ..., Konova, A., & Ahn, W.-Y. (in press). Rapid and reliable computational markers for predicting daily smoking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treatment outcome. <i>Neuropsychopharmacology</i> .
Bae, S., Kwon, J., Cha, J., Yoo, S. (2026). Learning brain dynamics across distinct scaling regimes reveals psychiatric signatures. <i>Communications Biology</i> .
Bae, S., Yoo, S., Cha, J. (2026) PIMSM: Physics-Informed Multi-Scale Mamba for Stable Neural Representations under Distribution Shift. <i>arXiv:2605.16351</i> .
Bae, S., Oprescu, M., Park, D., Yoo, S., Cha, J. (2026) Latent-Space Causal Discovery from Indirect Neuroimaging Observations. <i>arXiv:2602.09034</i> .
Pak, M., Ryu, Y., Bae, S., Anticevic, A., Costa, A. D., Thorsen, A. L., ... & Cha, J. (2026). Toward trustworthy clinical AI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reliability, generalizability, and interpretability of a transformer model across the ENIGMA-OCD consortium. <i>medRxiv</i> , 2026-04.
Oh, H., Goodman, J. K., Schley, D. R., Choi, I., & Vohs, K. D. (2026). Subjective Well-Being Enhances Experiential Perceptions. <i>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i> , 01461672261430980.
Jyung, M., Kim, J. H., Kim, K., & Choi, I. (2026). Five-factor model-based personality profiles in South Korea. <i>Scientific Reports</i> .
Ku, X., Cha, S. E., Kim, Y., Jun, Y. J., & Choi, I. (2026). Essentializing happiness mitigates the changes in subjective well-being following negative life events. <i>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i> , 52(3), 499-515.
Jyung, M., Kim, J., Jun, Y. J., Son, E. J., & Choi, I. (2026). To be authentic or not to be: How and why North Americans and South Koreans differ in making true-self-congruent choices. <i>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i> , 155(4), 1049.
Yun, S., Lee, J., Choi, I. (in press) Which Humans Do AI Systems Think Like? Cultural Patterns of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s



자랑스러운 심리학과 동문들의 소식을
뉴스레터에 실고자 합니다.
심리학과 이메일(psych@snu.ac.kr)로
많은 소식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심쿵한 기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발전기금 모금 안내

“심리학과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발전기금 기부안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는 1946년 창립 이래,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와 응용 연구에 앞장서며, 깊이 있는 학문적 유산을 쌓아왔습니다. 우리 학과는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어 내며, 국내외적으로 심리학의 학문적 중요성을 확립해왔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단순한 학문을 넘어,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정신 건강의 증진, 교육 방법의 혁신, 산업 및 조직의 수행과 포용성 향상 등, 심리학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의 미래 발전 방향은, 더욱 포괄적인 방법론과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간 심리 과정과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현대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발달과 변화를 예측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심리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는 발전 기금을 모집하여 우리 학과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부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함께 인간의 더 나은 이해를 통해 밝은 미래를 여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 모금 QR

